

## 부산지역의 외식실태조사

### 4. 저녁때의 외식성향

김 두 진

경남정보대학 식품과학계열

## A Survey on the Actual Condition for Dining-out in Busan

### 4. The Propensity to Dining-out at Suppertime

Doo-Jin Kim

*Dept. of Food Science, Kyongnam College of Information & Technology, Busan 617-716, Korea*

####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actual condition of dining-out and the propensity to dining-out at suppertime according to gender and age in Busan area. The survey was conducted on 792 peoples who live or work in Busan area.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s are as follows ;

The place to dining-out at suppertime were in order of "downtown" and "about the house". Partner to eating-out were in order of "friend" and "family". Restaurants used frequently at suppertime were in order of "Kalbi R.", "Korean style R." and "Sliced raw fish R.". The favorite menu were in order to "So-kalbi", "Sliced raw fish" and "Pizza". Drinking with a meal was 76.7% of respondents and the kind of liquor frequently drinking were in order of "Soju" and "Beer" at suppertime.

But, the results of the propensity to dining-out were different according to gender and age groups.

Key words : dining-out, propensity to dining-out, suppertime, Busan area.

#### 서 론

가정 밖에서 하는 식사를 외식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외식이라 하면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맛 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상상하게 된다. 따라서 점심때 단순히 식사만을 하는 경우 외식이란 표현을 쓰는 것은 어색하며, 고급음식점에서 여유롭게 맛 있는 음식을 먹는 경우에 외식이란 용어가 어울린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외식은 그 목적에 따라 식사를 위한 외식과 모임을 위한 외식 그리고 레저를 위한 외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1)</sup>. 식사만을 위한 외식인 경우에는 외식의 기본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는 단순히 식사만을 해결

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는 외식을 했다고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나, 모임을 위한 외식이나 레저를 위한 외식인 경우에는 음식점이 식사만을 해결하는 장소가 아니라 고객들이 여가를 즐기고 문화의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의 식사는 외식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외식시장은 아침, 점심 그리고 저녁으로 나눌 수 있지만 아직까지 아침시장의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외식시장은 점심시장과 저녁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2)</sup>. 점심때에는 대체로 식사만을 위한 고객이 많고 모임이나 레저를 위한 고객이 적은 대신에 저녁때에는 모임이나 여가를 즐기기 위한 고객이 많고 식사만을 위한 고객은 적다고 할 수 있다. 김<sup>1,2)</sup>

† Corresponding author : Doo-Jin Kim

의 보고에 의하면 외식시기에 따라 동반자, 자주 가는 외식 장소와 음식점 등이 차이가 있다고 하였으며, 점심때는 주로 친구나 직장동료와 직장 부근에서 분식집이나 중국음식점 등 가격이 저렴한 음식점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는데 비해 저녁때는 가족과 집 부근이나 시내 중심가의 갈비집과 횡집 등 규모가 크고 가격이 비교적 높은 음식점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외식업에서의 성공요인은 무엇보다 고객의 요구를 미리 파악하고 그것을 만족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고객의 요구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외식성향을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고객들의 외식성향은 외식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외식업 경영자는 자기 고객들의 외식성향을 조사하여 외식시기에 따라 영업내용을 달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동일한 고객이라도 점심때는 동료들과 간단히 식사만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저녁때에는 모임이나 여가를 즐기려고 올 것이므로 점심때와는 동반자가 다르고, 메뉴도 다르며 업소에 대한 요구도 다를 것이다. 따라서 외식업 경영자는 외식업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객들이 성별과 연령과 직업 등에 따라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먹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자료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점심때<sup>3,4)</sup>나 저녁때<sup>5)</sup>를 구분하여 외식성향을 조사한 보고는 많지 않고 대부분이 외식시기보다 성별이나 연령 등에 따른 기호도조사<sup>2,5~8)</sup>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외식시기에 따른 외식성향을 파악하는데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전보<sup>9)</sup>에서 부산시민들은 점심때 직장 또는 학교 부근에서 분식집이나 한식점에서 직장 동료나 친구와 식사를 자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본 조사는 부산지역의 외식업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저녁때 부산 시민들이 자주 가는 외식장소와 음식점, 동반자, 좋아하는 메뉴 그리고 음주여부 등 외식성향을 성별과 연령대별로 조사하였다.

## 연구 방법

### 1. 조사 대상 및 기간

본 조사는 2001년 5월에서 10월에 걸쳐 본교 식품과학계열 재학생의 협조를 얻어 본인을 제외한 부산시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가진 대학생 이상의 친지를 대상으로 성별과 연령 등을 고려하였으며 약 1,00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수집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한 792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 2. 조사내용 및 방법

본 조사 내용에서 식행동은 성별과 연령, 직업 그리고 거주지역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일반사항에서 성별, 연령, 직업 및 현주소 등을 조사하였으며, 연령은 자율적으로 외식을 할 수 있는 대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각 연령대별로 비교하였다. 대학생은 20대와 같은 연령대이지만 생활환경과 경제적인 차이로 외식성향이 다르기 때문<sup>1)</sup>에 분리하여 분석하였으며, 50대 이상은 외식성향이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같은 연령대로 분류하였다.

### 3. 자료분석

본 조사의 자료분석은 SPSS 10.0 program에 의해 처리하였고, 성별과 연령으로 구분하여 빈도수, 백분율 등은 빈도분석으로 변수간의 유의성은  $\chi^2$ 검정으로 하였으며, 각 문항에서 결측치는 자료 처리시 제외하였다.

### 4. 음식명 영문표기

음식명의 영문표기는 한국관광공사의 음식점 차림표 외국어 표기집<sup>10)</sup>의 로마자 표기 또는 영어 표기 중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 결과 및 고찰

### 1. 일반사항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자는 대학생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성별 비율은 남자 363명 대 여자 429명으로 그 비율은 46 : 54이며, 연령별로는 대학생 26.1%, 20대 18.5%, 30대 19.6%, 40대 18.2% 그리고 50대 17.6%로 가능한 연령간의 수적인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였다. 직업별에서는 학생 26.1%, 회사원 32.8%, 공무원 1.8%, 주부 21.5% 그리고 상업 7.8% 등이었으나, 학생, 회사원, 주부 등이 약 80%를 차지하여 직업별 분포는 균형을 맞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조사는 성별과 연령별의 비교는 가능하지만 직업별이나 기타 다른 형태의 비교는 할 수 없다.

### 2. 외식장소

Table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저녁때 자주 가는 외식장소는 시내 중심가(25.3%), 집 근처(23.4%), 소문난 곳(17.7%) 그리고 직장 근처(17.4%)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시내 중심가(26.0%), 직장 근처(24.3%)가 높는데 비해 여자는 집 근처(27.3%), 시내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Item	Gender				Total	
	Male		Female		N	%
	N	%	N	%		
Age						
Uni. Student(U.S)	100	12.6	107	13.5	207	26.1
Twenties (20)	62	7.8	85	10.7	147	18.5
Thirties (30)	65	8.2	90	11.4	155	19.6
Forties (40)	67	8.5	77	9.7	144	18.2
Fifties over(50)	69	8.7	70	8.8	139	17.6
Total	363	45.8	429	54.2	792	100
Job						
Student	100	12.6	107	13.5	207	26.1
Office worker	152	19.2	108	13.6	260	32.8
Official	9	1.1	5	0.6	14	1.8
Housekeeper	0	0.0	170	21.5	170	21.5
Commerce	46	5.8	16	2.0	62	7.8
Others	56	7.1	23	2.9	79	10.0
Total	363	45.8	429	54.2	792	100

중심가(24.7%)순으로 차이를 보였다(p<0.01). 이와 같은 결과는 응답자의 21.5%가 전업주부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연령별 외식장소 이용율은 젊을수록 시내 중심가의 비율이 높고 나이가 들수록 집 근처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p<0.01).

전보<sup>9)</sup>의 점심때 외식장소로는 직장 또는 학교부근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집 부근이 높아져 저녁때와 점심때의 외식패턴이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이한 점은 집 부근에서 외식을 하는 비율이 점심때 16.8%<sup>9)</sup>였는데 저녁때는 23.45%로 높게 나타났다. 가족외식시 외식장소로 주거지역(48.5%)과 집 부근(22.3%)이 높다는 것은<sup>5)</sup> 집 부근에서의 외식비율

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3. 외식동반자**

저녁 외식 때의 동반자는 Table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친구(49.1%)와 가족(48.9%) 그리고 직장 동료(21.9%)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친구, 가족, 직장동료 순인데 비해 여자는 가족, 친구, 직장동료 순으로 차이가 있었다. 가족과 친구를 제외한 기타 동반자와의 외식 비율이 남자는 54%인데 비해 여자는 35%로 낮다는 것은 여자가 남자에 비해 가족이나 친구와의 외식을 더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외식동반자는 연령에 따라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나이가 적을수록 친구와의 외식 비율이 높는데 비해 나이가 많을수록 가족과의 외식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나이가 많아질수록 가족과의 외식기회는 많아지고 직장동료나 친구와의 외식횟수는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점심때<sup>9)</sup>에는 20대 이상의 남자와 여자는 직장동료와의 외식이 70% 이상이었고 대학생들은 대부분이 친구들과 외식을 한다는 보고와 비교해 보면 저녁때는 젊은 사람들은 친구와 그리고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가족과의 외식 비율이 증가하여 점심때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20~30대 직장여성들이 주로 친구와 함께 외식을 한다는 보고<sup>6)</sup>와 외식시기와는 상관없이 외식동반자로는 친구, 가족 순이라는 보고<sup>7,8)</sup>와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4. 자주 가는 음식점**

Table 4에서 저녁 외식 때 자주 가는 음식점에 대한 결과로서 전체적으로는 갈비집(46.6%), 한식집(28.9%), 횃집(27.8%)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자가

**Table 2. Place of dining-out at suppertime**

(Unit : %)

Item	Total	Gender		Age				
		M	F	U.S	20	30	40	50
Respondents(N)	791	362	429	206	147	155	144	139
Near the house	23.4	18.8	27.3	19.4	14.3	25.2	24.3	36.0
Near the office	17.4	24.3	11.7	9.2	19.0	18.7	23.6	20.1
Downtown	25.3	26.0	24.7	37.9	38.1	20.0	15.3	9.4
Wellknown shop	17.7	16.3	18.9	12.1	11.6	21.9	26.4	18.7
Suburb	2.8	3.9	1.9	2.4	1.4	2.6	3.5	4.3
Anywhere	13.4	10.8	15.6	18.9	15.6	11.6	6.9	11.5
$\chi^2$		p<0.01		p<0.01				

Table 3. Partner of dining-out at supptime

(Unit : %)

Item	Total	Gender		Age				
		M	F	U.S.	20	30	40	50
Respondents(N)	791	363	428	206	147	155	144	139
Family	48.9	39.4	57.0	44.7	29.9	52.9	59.0	60.4
Friend	49.1	46.0	51.6	82.0	70.1	35.5	19.4	23.7
Fellow worker	21.9	29.5	15.4	4.4	25.9	37.4	28.5	19.4
Customer	5.9	10.2	2.3	0.0	4.1	12.3	9.7	5.8
Alone	1.9	2.8	1.2	1.9	2.7	1.3	2.8	0.7
Neighborhood	4.6	3.0	5.8	0.5	2.7	6.5	6.3	8.6
Meeting member	9.1	8.3	9.8	8.3	5.4	5.2	14.6	12.9

double response

Table 4. Restaurant used frequently of dining-out at supptime

(Unit : %)

Item	Total	Gender		Age				
		M	F	U.S.	20	30	40	50
Respondents(N)	785	359	426	205	145	153	144	138
Korean style restaurant	28.9	32.0	26.3	25.4	24.8	28.1	31.3	37.0
Kalbi restaurant	46.6	47.4	46.0	29.8	41.4	60.8	56.9	50.7
Sliced raw fish restaurant	27.8	32.9	23.5	13.2	11.7	33.3	40.3	47.1
Hanjongshik restaurant	13.1	12.5	13.6	5.4	13.8	15.7	19.4	14.5
Chinese style restaurant	5.7	7.0	4.7	7.8	5.5	3.3	4.2	7.2
Japanese style restaurant	6.8	10.9	3.3	3.9	5.5	10.5	11.1	3.6
Western style restaurant	9.6	7.8	11.0	12.7	15.2	8.5	4.2	5.8
Buffet restaurant	11.0	9.7	12.0	6.8	8.3	10.5	13.2	18.1
Hamburger restaurant	12.7	7.8	16.9	29.3	19.3	6.5	1.4	0.0
Chicken restaurant	3.3	4.2	2.6	4.9	4.8	2.6	1.4	2.2
Pizza restaurant	9.9	6.4	12.9	20.5	15.9	4.6	2.8	1.4
Flour food restaurant	16.2	12.3	19.5	36.1	23.4	5.2	3.5	4.3

double response

갈비집(47.4%), 횃집(32.9%), 한식집(32.0%) 순으로 자주 가는데 비해 여자는 갈비집(46.0%), 한식집(26.3%), 횃집(23.5%)순으로 자주 가는 것으로 조사되어 성별 간에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에서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한식집, 갈비집 그리고 횃집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한 반면에 대학생과 20대는 햄버거점, 피자점 그리고 분식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그러나, 30대 이후에는 선호도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또한 뷔페 식당의 경우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 선호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음식점 선호도에 대한 서울지역의 조사에서 한식당, 패밀리 레스토랑, 패스트푸드점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sup>6-8)</sup>, 갈비집, 횃집 등도 한식당에

해당하므로 한식당의 선호도가 가장 높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서울지역은 패밀리 레스토랑의 선호도가 2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인데 비해 부산은 패밀리 레스토랑이 정착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아직은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패밀리 레스토랑이 선진 외식문화의 산실이라면 아직까지 부산지역의 외식문화는 서울지역에 비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점심때의 외식성향을 조사한 전보<sup>9)</sup>에서 분식집에 대한 선호도가 전체 연령대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저녁때에 다른 연령대에 비해 대학생과 20대에서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은 대학생과 2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경제력이 약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송<sup>11)</sup>의 남녀 학생 모두 저녁때 자주 이용하는 음

식점의 형태가 분식점이라는 보고와, 강 등<sup>12)</sup>의 여대생들은 분식형태를, 어머니들은 한식형태를 선호한다는 보고와 같은 경향을 나타냈다. 윤 등<sup>13)</sup>은 음식이 간편하고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장소로서 적당하며 장소가 쾌적하고 식기가 위생적이며 음식이 신속히 준비되는 등의 이유로 대학생들이 패스트푸드점을 자주 이용한다고 하였다.

**5. 자주 먹는 메뉴**

저녁 외식 때 자주 먹는 메뉴는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는 소갈비(43.0%), 생선회(40.9%)순이었으나, 성별로는 남자는 생선회(47.0%), 소갈비(44.6%)순이고, 여자는 소갈비(41.6%), 생선회(35.9%) 순으로 남자가 생선회, 여자는 소갈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갈비와 생선회에 대한 선호도는 여자(약 77%)가 남자(약 91%)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것은 여자는 피자과 햄버거 등 외래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남자보다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소갈비와 생선회에 대한 선호도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높아졌으며, 피자과 햄버거에 대한 선호도는 대학생과 20대와 같이 젊은 연령대에서는 높게 나타났지만 30대 이후에는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학생들이 햄버거, 피자를 좋아한다는 윤 등<sup>13)</sup>의 보고와, 돈까스, 불고기 등 간편성과 편의성 위주의 음식을 선호한다는 신 등<sup>14)</sup>의 보고와 같은 경향을 나타냈다.

메뉴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는 것은 조사방법이나

외식시기 그리고 성별, 연령, 생활 정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서울지역에서의 조사결과는 돼지고기<sup>5,8)</sup> 고기구이<sup>6)</sup> 그리고 치킨요리<sup>7)</sup>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외식시기, 성별, 연령 등은 확인할 수 없었다.

식품기호도는 연령과 성별에 따라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20대 전·후 세대의 식생활은 서구화되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세기 걸쳐서 내려온 한국인의 음식문화가 쉽사리 없어지지 않는 것지만 기성세대들은 우리의 고유한 전통음식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6. 음주 여부**

Table 6은 저녁 외식 때 음주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서 저녁때 외식을 하면서 항상 술을 마시는 사람이 21.2%, 가끔 마시는 사람이 55.4%로 응답자의 대부분인 약 77%가 저녁때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가 85%, 여자가 70%로 남자가 여자보다 음주비율이 높은 편이지만(p<0.01), 여자의 음주비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연령별로는 큰 차이가 없지만 30대가 음주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인의 식생활라이프를 조사한 갤럽<sup>3)</sup>의 보고에서 월 1~2회를 포함하는 경우 30대의 음주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거의 매일 음주하는 경우에는 40대가 가장 높았다는 보고와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Table 5. The favorite menu of dining-out at suppertime**

(Unit : %)

Item	Total	Gender		Age				
		M	F	U.S.	20	30	40	50
Respondents(N)	733	332	401	184	137	145	137	130
So-kalbi	43.0	44.6	41.6	25.0	29.2	54.5	57.7	54.6
Hanjongshik	12.8	13.3	12.5	7.6	12.4	15.9	16.8	13.1
Agu-tchim	10.1	6.9	12.7	2.2	7.3	12.4	20.4	10.8
Sliced raw fish	40.9	47.0	35.9	23.4	21.2	54.5	54.7	56.9
Samgyopsal	13.4	15.1	12.0	11.4	18.2	18.6	9.5	9.2
Chicken	9.7	10.8	8.7	15.8	10.2	6.9	7.3	6.2
Naengmyon	8.0	5.7	10.0	11.4	8.0	2.8	10.2	6.9
Pizza	15.7	13.3	17.7	31.0	26.3	6.9	5.8	3.1
Bulgogi	8.9	9.3	8.5	11.4	8.8	11.0	4.4	7.7
Pork cutlet	8.6	7.5	9.5	16.8	10.9	4.8	2.9	4.6
Hamburger	14.9	9.3	19.5	33.7	28.5	3.4	1.5	0.8
Buffet	6.8	6.3	7.2	3.3	3.6	5.5	5.1	18.5

double response

Table 6. Drinking with a meal at suppertime

(Unit : %)

Item	Total	Gender		Age				
		M	F	U.S.	20	30	40	50
Respondents(N)	789	362	427	206	147	155	143	138
Usually	21.2	35.4	9.1	12.1	19.0	27.7	22.4	28.3
Sometimes	55.4	49.4	60.4	55.3	59.9	58.1	55.9	47.1
No drinking	23.5	15.2	30.4	32.5	23.1	14.2	21.7	24.6
$\chi^2$		p<0.01		p<0.01				

Table 7. The kind of liquor frequently drinking at suppertime

(Unit : %)

Item	Total	Gender		Age				
		M	F	U.S.	20	30	40	50
Respondents(N)	662	327	335	161	128	141	121	113
Whisky	1.8	3.1	0.6	1.2	3.2	0.0	5.0	0.0
Soju	66.6	76.1	57.3	66.3	60.3	63.1	66.1	76.1
Beer	26.0	15.0	36.7	28.6	27.8	30.5	26.4	14.2
Wine	1.5	1.8	1.2	1.2	1.6	2.8	0.8	0.9
Kaoliang wine	0.6	0.6	0.6	0.0	1.6	0.0	0.8	0.9
Makkoli	0.8	0.9	0.6	0.0	1.6	0.7	0.0	1.8
Others	2.7	2.4	3.0	0.6	4.0	2.8	0.8	6.2
$\chi^2$		p<0.01		p<0.01				

Table 7은 저녁 외식 때 자주 마시는 술의 종류로서, 소주가 69.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맥주가 26.0%로 두 종류의 술이 전체의 9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간의 비교에서 남자는 소주를, 여자는 맥주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연령별 비교에서는 40대와 50대 이상은 소주를 20대와 30대는 맥주를 더 선호하는 것을 볼 수 있다(p<0.01). 대학생의 경우에는 20대와 같은 연령대지만 20대보다 맥주의 비율이 낮고 소주의 비율은 높았는데, 이것은 대학생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소주의 소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 요 약

부산지역의 외식실태 중 저녁때의 외식성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산시내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가진 대학생 이상의 남녀 792명을 대상으로 외식빈도, 외식장소, 외식동반자, 자주 가는 음식점과 음식 그리고 식사시 음주 여부와 자주 마시는 술의 종류 등을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외식성향에 대한 다양한 결과를 알아내기 위해서 성별, 연령 그리고 직업별로 통계처리하였으나 본 보고서에는 성별과 연령별 결과만을 발표하였다.

저녁때에 자주 가는 외식장소로는 시내 중심가(25.3%), 집 근처(23.4%), 소문난 곳(17.7%) 순이었으며, 남자는 시내 중심가(26.1%), 여자는 집 근처(27.6%)가 가장 높았으며, 젊을수록 시내 중심가에서의 비율이 높고 나이가 들수록 집 근처의 비율이 높았다. 저녁 외식때의 동반자는 친구(49.1%)와 가족(48.9%)이 대부분이었다. 저녁 외식 때 자주 가는 음식점은 갈비집(46.6%), 한식집(28.9%), 횃집(27.8%) 순이었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한식집, 갈비집 그리고 횃집의 순으로, 대학생과 20대는 햄버거점, 피자점 그리고 분식점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저녁에 외식때 자주 먹는 음식은 소갈비(43.0), 생선회(40.9%)순이었으며, 소갈비와 생선회에 대한 선호도는 나이가 많을수록, 피자와 햄버거는 대학생과 20대에서 선호도가 높았다. 저녁 외식때 약 77%가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주 마시는 술의 종류로는 소주(66.6%)와 맥주(26.0%)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되

었다

이상의 결과로 부산 시민의 저녁때의 외식성향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다양한 부산시민의 외식업소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좀 더 다양한 조사를 계속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김두진, 김갑순, 김천서, 오찬, 차종화 : 외식사업입문, 경남정보대학 (2002).
2. 김두진 : 부산지역의 외식실태조사 1. 연령과 성별에 따른 외식성향, *한국식품영양학회지*, 7(3), 239 (1994).
3.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한국인의 식생활라이프스타일, 97~105 (1990).
4. 한국외식정보(주) : 잘 차린 점심, 잘 팔리는 점심, 월간 식당, 3월호, 135 (1999).
5. (주)에이치알 : IMF시대 직장인 외식실태 설문조사, 월간 호텔 & 레스토랑. 4월호, 74~75 (1998).
6. 한국외식정보(주) : 20~30대 직장여성 외식소비패턴에 관한 설문조사, 월간 식당, 12월호, 173~179 (2000).
7. 한국외식정보(주) : 외식트렌드 설문조사. 월간 식당, 4월호, 178~187 (2002).
8. 한국외식정보(주) : 외식트렌드 설문조사. 월간 식당, 4월호, 174~180 (2001).
9. 김두진 : 부산지역의 외식실태조사 3. 점심때의 외식성향, *한국식품영양학회지*, 14(1), 69~76 (2001).
10. 한국외식정보(주) : 음식점차림표 외국어 표기집, 월간 식당, 3월호, 200~225 (1999).
11. 송병춘 : 서울지역 대학생의 외식행동과 식품기호를 통해 본 식생활 양상, *건국자연과학연구지*, 제9집(2), 269~280 (1998).
12. 강남이, 조미숙 : 여대생과 그들 어머니의 외식산업에 대한 식생활 태도 조사, *한국식품영양학회지*, 4(1), 45~60 (1991).
13. 윤혜진, 위성언 : 대학생들의 패스트푸드와 외식행동에 관한 실태조사, *한국식품영양학회지*, 7(4), 323~331 (1994).
14. 신미경, 한성희 : 식품기호가 성인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익산시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7(2), 181~198 (1997).

(2002년 10월 20일 접수)